도카시키

**꼬불꼬불한 긴 길**

**섬 서쪽에서 보이는 바다의 경치를 즐기면서 약간 높은 숲길을 걷는다**

경로: 아하렌 - 데루야마 원지 - 도카시쿠

거리: 4.8km

소요 시간: 75분

난이도: 중간

**개요**

게라마 제도의 삼림의 대부분은 나무들이 매우 빽빽하고 또한 일부 섬에는 뱀이 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갈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워킹에서는 숲 깊은 곳에 들어가 바다의 경치와 소리를 즐기면서 지역의 나무들과 꽃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이 워킹은 도카시키 남동쪽에 위치하는 아하렌 마을에서 출발합니다(만약 아하렌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도카시키에서 아하렌까지 버스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하렌까지는 손도 아하렌선(도카시키 마을로 되돌아가는 주요 도로)에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20분 정도 걸으면 길이 갈라집니다. 표지에 따라 손도 아하렌선을 돌아서 삼림공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면 10분쯤 지나 공터(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숲을 통과하는 데루야마 원지 산책길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1월부터 3월에 걸쳐 피는 색이 고운 진달래꽃과 3월부터 4월에 걸쳐 피는 소귀나무 꽃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에서는 섬 서쪽에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1.2km의 데루야마 원지 산책길을 반쯤 온 지점에서 남쪽으로 아하렌 해변, 북쪽으로 도카시쿠 해변을 조망하는 데루야마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산책길이 다시 도로에 합류했다면 왼쪽으로 꺾어져서 도카시쿠를 향해 30분 정도 길을 내려가세요. 도로는 해변과 평행하게 나 있어 기분 좋은 공원을 가로질러 해변에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특공정 비밀 참호입니다. 이는 미군이 일본 본토로 침공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수중 폭탄을 탑재한 모터보트 1정을 지키기 위해 판 동굴입니다. 해변의 폭은 800m로서 산이 많은 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워킹 뒤에는 자신에게 주는 상으로 잠시 수영을 즐기는 건 어떠신가요?

**SUGGESTED PHOTO(S)**

1. View from Teruyama Enchi Nature Trail (Hero image)

2. Sondo Aharen Road

3. Entrance to Nature Trail

4. View of Nature trail

5. Rejoin road to Tokashiku

6. Suicide bunker